30여년간 사회와 여성을 위한 활동을 해 오다가 최근 환경과 생명에 대한 문제에 굵직굵직하게 업적을 쌓아가는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박정희 회장. 꼼꼼한 여성의 안목을 십분 발휘,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녀가 만들어 가는 환경사랑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파고들고 있다.

가을이 성숙해지고 있는 시월의 중간 즈음 '절약이 환경사랑'이라는 타이틀하에 열리고 있는 행사에서 바쁜 그녀를 만나 작지만 소중한 환경활동을 들어보았다.

(사)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박정희 회장

"나의 작은 실천이 환경운동입니다."

▶(사)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를 설립하시고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먼저 여성환경운동본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여성환경운동본부는 전 환경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여성단체 간부들이 교육을 받은 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만들어진 사단법인 환경운동 단체로 여성에서 비롯되는 실천으로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넓게는 '환경은 곧 생명이다' 라는 환경인식 하에 환경의식 고취, 환경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어릴 때부터의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위해 교육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용 환경교재를 발간, 유치원 보육교사들을 교육시켜 친환경적인 정서가 마련되도록 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놀이' 교재를 만들어 유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배포해 기초환경지식 습득에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사랑의 중요성 및 실천강령들을 교육함으로써 스스로가 선택해 환경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의 파장은 부모님을 비롯해 기성세대를 변화시켜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의 정착으로 인한 환경보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외에도 여성으로서의 환경실천강령 교육, 즉 합성세제 덜 쓰기, 오염배출 모니터링, 폐건전지 모으기, 수질검사, 환경관련 직업훈련 실시 등 여성의 힘이 유리한 곳부터 환경보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환경단체가 있지만 현실적인 생활현장의 주체인 여성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여성의 힘을 모아 효과적인 환경보전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환경분야 중 특히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지요? 그리고 재임기간 중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적인 단체 YWCA일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며, 환경부 공보자문위원 및 중앙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분야를 알게 되고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쇄신을 위한 운동을 펼쳐오면서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수자원보호구역의 유리온실건설 반대, 폐기물 처리관련 등의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및 의식고취, 실천강령 등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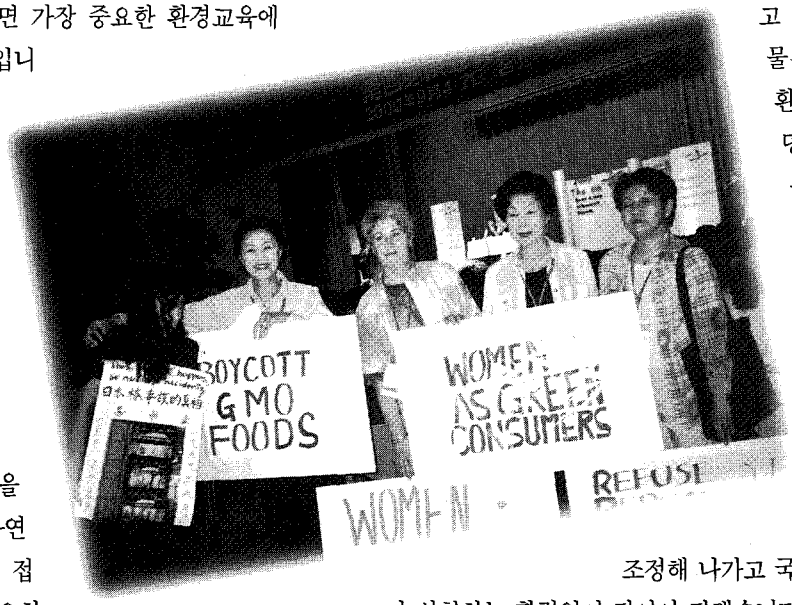
일반인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을 하려면 먼저 왜 환경보전이 중요한지에 대해 먼저 알려야 합니다. 지난 8월 오키나와 환경회의에 참석,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건강과 직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책은 늘 탁상공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을 일반소비자에게 알리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아야 소비자차원에서 대책방안이 나올테니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관련 기초지식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환경청에서 교재로 발간하고 있는 '폐기물을 낭비하지 맙시다'란 교육지침을 번역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환경의식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이로 인한 실천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임기간 중에도 작은 일 같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환경교육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작은 생활습관이 전체 환경보전의 모태가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환경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30여년간 사회와 여성을 위해 활동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접했습니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생명과 직결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습관화된 작은 친환경적인 실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편해지는 생활을 원하면 친환경적인 생활습관과는 멀어집니다. 일반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이 정부와 기업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환경,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진심어린 각성과 예외없는 노력만이 우리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 오셨는데 나름대로 국내 환경실태를 평가하신다면?

전체적으로 환경의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 생활습관과 기업의 생산활동에서는 비 환경적일 때가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정부도 단기적 이익을 떠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지원금을 보장하고 각 관련부처는 물론 사회단체와 환경운동가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우리의 환경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은 환경에 이로운 기업구조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국민들은 작으나마 실천하는 환경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로 이에 맞는 교육을 개발·확산하고 각 시민단체와의 연대로 환경보호 캠페인, 시민실천감시활동 심화는 물론 역량을 넓혀나가 국민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환경보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환경관련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얼마 전 '대만 여성세계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는 동남아 개발도상국 20여개국 환경관련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환경정책, 무역 관련해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느끼는 행사였습

니다. PPMS, LCA 국제무역장벽으로 등장한 환경문제을 공감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할 때 '우리는 하나'라고 느꼈으며 보람있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세계가 공감하는 환경관련 활동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으시다면?

단체장은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는 젊은 활동가에게 물려주고 건전한 시민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좋은 것을 나누고 계몽해 나가고 싶습니다. 꿈이 있다면 오래전 산을 구입했는데 그곳에 환경생태농원 즉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나 와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는 그로 인한 환경보전의식 파급효과를 배양해 나가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인들이 환경정보를 리더하고 기업주의 마인드부터 생산활동까지 친환경기업으로 리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가 풍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환경운동가이며 주변의 생명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환경일선에서 일하는 환경관리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주의 환경경영마인드가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만 관리인들이 환경친화기업의 풍토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정보 수집, 기술습득으로 세계적인 환경기업 브리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경주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인들이 환경정보를 리더하고 기업주의 마인드부터 생산활동까지 친환경기업으로 리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가 풍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환경운동가이며 주변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박정희 회장은 환경보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금도 인터넷을 서핑하고, 외국 선진사례들을 모아 연구·개발을 쉬지 않고 있다. 탁월한 꼼꼼함과 노력으로 크고 작은 활동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는 그녀는 개인 가족사에서도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4대를 내려오는 그릇, 결혼식 때 입는 활옷은 며느리에게도 입혔다.

요즘 폐형광등의 분리수거, DMO(유전자변형체)식품 및 새만금 등의 일로 바쁘게 보내지만 YWCA에서부터 시작한 아나바다 운동에는 빠짐없이 참가한다.

환경단체들의 많은 이벤트로 국민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단체장들의 정치성과 영웅주의에는 유감을 표시하는 그녀. 죽을 때까지 조용히 시민운동을 하고 싶은 그녀의 작은 꿈이 이 가을날 더욱 숭고하게 보인다.

박정희 회장의 주요약력

1939. 1. 30 서울 출생

⊙ **학력**
1962. 2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졸업
1991. 5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연수
1997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수료

⊙ **경력**
1962. 2 서울YWCA 간사
1991. 1-95. 1 서울YWCA 회장(2선)
1985-1991 평화통일 자문위원
1993-1994. 12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996-현재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회장
1997-현재 환경부 공보자문위원, 중앙자문위원
1999-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사
1999-현재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

⊙ **논문 및 저서**
1992 여성과 사회
1993 환경보전 교육
1995 폐기물 제도와 시민운동(영문)
1997 유아용 환경교재(공저)외 다수